

위기의 군산시, 출구는 국고보조금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안갯속 여전

중앙부처에 30 → 70% 상향 지원 건의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경제상황의 변화, 전북대병원의 재정악화 등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원장 강명재)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토 용역 이후 지난 7월말 간담회를 갖고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고보조금 상황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는 데 인식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을 방문해 군산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상향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국무총리실의 '군산현안사업' 자료 제출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포함시켜 국고보조금 지원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853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30%에 해당하는 560억원 가량이며,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을 30%에서 75%로 상향해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시에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문제점 해결과는 별개로 현재 중단된

부지매입은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에 토지매입 재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로, 이에 대한 결과는 이후 개최될 전북대병원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향대 보건소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시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군산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최선을 다해 국고보조금 상향을 통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정상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25일 군산시청 정문 및 후문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응원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경제발전 주역 한국지엠 살리기

시 여단협, 응원 캠페인 전개 플래카드·피켓 홍보 나서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25일, 경기침체와 공장 철수설 등의 무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캠페인에선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산하 단체대표 14명이 군산시청 정문 및 후문에서 아침 출근시간 일반시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역사회와 함께 한 20년~ 같이 갈 100년을 위하여'라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사)한국여성문화생활회 송미숙 회장(전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 롯데마트 앞에서 '한국지엠 자동차 애용 1인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전명자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인 한국지엠을 위해 군산의 여성들이 작지만 큰 힘을 실어주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군산지역 경제발전의 주역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살아나야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범시민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낙시 하던 레저보트 포류

군산해경, 전원 구조 완료

출항 전 안전점검 당부

가을 주꾸미 낙시 참여로 레저보트 사고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과 명도 인근해상에서 각각 1t, 0.5t급 레저보트 2척이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비정을 동원해 모두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각각 2명과 1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는 아침부터 주꾸미 낙시를 위해 배를 몰다 선내 장비가 고장을 일으켜 해상에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25일에도 말도 인근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1.3t급 레저보트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구조됐고, 오후 2시께는 비응항 입구에서 1명이 타고 있던 1t급 레저보트와 승객 7명이 타고 있던 4.9t급 낙시어선이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레저보트 운전자 허씨(55) 골절상을 입는 등 레저보트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현재까지 원거리 레저보트 출항은 1,27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척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레저보트 활동이 크게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올 현재까지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모두 38건으로 지난해 22건과 비교했을 때 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군산해경 운전기 교통레저계장은 "선박사고를 구조하기 위해 경비함정이 쉽 없이 바다를 오가고 있지만, 운항자의 작은 관심으로 사고가 줄어들면 더욱 빠르게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엔진을 정비하고 충분한 연료적재 등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가 행복한 놀이터 만든다

군산시 - 세이브칠드런 등

놀이공간 활성화 협약 체결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며 놀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공간을 군산에서 만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6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대학교 김동익 산학협력단장, 세이브칠드런 송혜승 사업본부장,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희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행복놀이터 조성 및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칠드런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환경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와 함께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군산대학교에서는 놀이터 활성화를 양성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유쾌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들이 느끼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족,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기는 시간일 것"이라며 "군산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다양한 놀이터 환경을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이브칠드런 송혜승 사업본부장은

"세이브칠드런에서 추진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 어린이 행복도시인 군산시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세이브칠드런과 벤처 기부 펀드인 C-Program을 중심으로 리서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놀이터 환경을 진단하여 향후 군산시 놀이터를 활성화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놀이터의 개선효과와 함께 전문 활동가가 참여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농식품부 식생활 프로그램

원광대, 전북도 유일 선정

농축산식품부 및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2017년 청년층 식생활교육 역량제고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생활교육과 환경·건강·배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식생활교육 역량제고 사업'은 아침 결식을 증가, 외식 증가,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국 대학교 식생활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2017학년도 2학기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5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원광대가 선정됐다.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식생활교육과 환경·건강·배려'는 기초 활동,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생활교육과 환경·건강·배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연사 특강, 실습 및 체험으로 분류돼 있으며, 기초 활동은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개인별, 조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강은 벤처 농부 성공 스토리, 우리 밀 농산물의 활용 방안, 한 의학을 이용한 건강한 식생활, 다문화 가정의 식생활 이해,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식생활 등으로 꾸며

졌으며, 실습 및 체험은 쌀 케이크 만들기, 농축산식품부 지정 우수미를 체험으로 진행된다.

사업 책임자인 원광대 식생활교육 기관 대표 박은숙 교수는 "14개 학교 학생들이 매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청년층의 바른 식생활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익산서 추석명절 나눔의 손길 잇따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회장 황오성)은 추석을 맞아 청소년 희망나무 장학금 대상자에 전달해 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명절 꾸러미를 익산시에 기탁했다.

26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황오성 회장, 배산라이온스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배산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심시 일반 정성을 모아, 삼겹살, 백미, 라면, 상품권 등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꾸러미를 이날 청소년 희망나무 장학금 수혜자 20가정에 각각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이리동로타리 클럽은 쌀, 김, 캔 등으로 이뤄진 명절 선물꾸러미를 저소득 가정 8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유한회사 엠티에프프레지' 임기완 대표가 작년에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햅쌀20kg 100포를 옹포면 사무소에 기탁했다.

(유)엠티에프프레지는 전주에서 성공한 낙시, 레저용품사업체로 회사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소재지 덕진구청과 엠티에프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고향 포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황등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기심)도 정성껏 만든 반찬을 어려운 58세대에게 전달했다.

부녀회원들은 새벽부터 바쁜 일손을 잠깐 멈추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적극 동참했다. 반찬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